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현송월 단장 등 방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21일 경의선 육로로 방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2분쯤 북측 인원이 우리측 CIQ(남북교류입사무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정부합동지원단장과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가 현 단장을 만난 한종욱 과장 등이 CIQ에 나가 이들을 맞았다.

북측 사전점검단은 공항의 출입국 절차처럼 CIQ에서 신원확인, 수하물 검사, 방역 등의 출입경 절차를 밟고 9시 17분쯤 절차를 완료 후 바로 서울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현 단장 일행은 곧바로 강릉행 0471 KTX에 8호차에 탑승해 오전 10시 50분 출발했다.

현 단장은

“방남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 미소만 띠운 채 답변이 없었다.

현 단장은 검은색 계열의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탈도리를 두른 모습이었다.

이들은 이들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 등을 둘러보고 남측과 북측 예술단의 공연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한다.

현 단장을 비롯한 북측 사전점검단 일행은 이날 낮 서울을 경유해 강릉에 도착한 후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3시30분께 명륜고등학교 내 활영조기념체육관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황영조기념체육관은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의 모교에 지어진 시설로 약 1천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사전점검단은 활영조기념체육관에서 약 10여분 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주민 20여명이 나와 일행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사전점검단 일행은 오후 3시46분께 강릉아트센터로 이동했다. 강릉아트센터는 지난달 준공된 시설로 약 1천여명 수용이 가능하다.

사전점검단 일행은 강릉아트센터에서는 1시간 이상 머물며 무대 시설과 객석 규모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아트센터 3층 VIP실에서 환담을 나눈 일행은 4시6분께부터 음악체크를 실시했다.

이어 오후 4시23분경 988석 규모의 사임당홀과 개인분장실, 단체분장실, 의상실 등을 둘러본 뒤 3층 VIP실로 향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전점검단 일행이) 아트센터에 관해 심도있게 물어봤다”고 전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 공연의 무대로는 강릉아트센터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전점검단 일행은 오후 6시14분께 버스에 탑승해 강릉아트센터를 떠났다.

이날 강릉에서 사전점검을 마치고 하룻밤을 보낸 뒤 22일 오전 서울로 돌아가 우리 정부가 미리 주려둔 공연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북한이 21일 남쪽으로 파견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해 지난 15일 남북 실

무접촉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서 제공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관련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서는 현송월 외에 김순호 삼지연관현악단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의 모습이 포착됐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이날 저녁 새로 문을 연 경포 스카이베이 호텔에 투숙했다.

한편 북한이 방남 중인 사전점검단 일행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자 말아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측 사전점검단의 방남 비용은 우리 측에서 지불했지만, 내일 방북 예정인 우리 측 선발대의 비용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태원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송월이 말하거나 웃는 장면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찍어서도 안 된다는 남북간 합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물음에 ‘북측에서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의 사전점검단 일행이 전날 강릉에 있는 공연장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국정원 관계자에 의해 막혀 취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부처 홍보영상과 교류를 위해 우리 측 선발대의 비용에 관해서는 남북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

류를 위해 우리 정부가 1990년 설치한 기

금으로, 재원 조달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평양뉴스

웃는 모습 등의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백 대변인은 “남북이 일정을 협의하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사전점검단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라기보다, 지금은 사전점검단은 ‘시설점검을 위해서 앉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히 하고 싶다는 입장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명시적으로 현 단장에 대한 취재를 안 했으면 좋겠냐고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북측이 이번 방남이 사전점검이라 는) 취지에 충실히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다.

또 현 단장 등의 사전점검단 일행의 방문 일정은 전날 강릉 방문에 이어 이날도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다만 백 대변인은

“풀기자단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알리드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풀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단장의 방남비용은 우리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체를 지불하지만,

내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방북하게 될 우리 측 선발대의 비용에 관해서는 남북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해 우리 정부가 1990년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 조달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평양뉴스

“핵 접어두고 문화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해선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하는 모습.

“너는 심부름만 잘 하거라”

미주 기독일보, 청주중앙순복음 김상용 목사 초청 세미나

7명과 함께 초가집에서 암수집사가 개척한 교회가 재적인원 3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너는 심부름만 잘 하면 된다.”

박준 목사

김상용 목사

7명과 함께 초가집에서 암수집사가 개척한 교회가 재적인원 3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의 목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1월 15일 본지 주최, 종교개혁기념사업회 미주본부 주관으로 열린 김상용 목사 초청 영성 세미나에서 김 목사는 자신의 40년 목회를 간증했다. 김 목사는 “제가 여러 목사님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겠는가? 그저 제 목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1973년 초가로 된 자택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암수집사였다.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 달라”는 어머니를 향해 “제는 목사가 될 사람이나 아니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는 결국 국어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회를 하게 됐다.

일단 교회는 개척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는 “남들보다 못 배우고 아는 것이 없으니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 외엔 없었다”고 회고했다.

김상용 목사는 “제가 한 일이 없다. 주님께 물어 보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목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된다. 여러분의 힘든 이민목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라”고 격려했다.

김상용 목사는 “제가 한 일이 없다. 주님께 물어 보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목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된다. 여러분의 힘든 이민목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라”고 격려했다.

한편 김상용 목사는 “제가 한 일이 없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잘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 광경을 보고 김 목사는 “하나님! 저도 심부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부터 김상용 목사의 심부름 목회가 시작됐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 밤새 기도하며 매달렸다. 하나님은 한 편의 설교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으나,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난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새 성전을 건축한 후, 성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봄도 더 성장을 불가능했다. 교회 옆은 공동묘지였다.

미주 기독일보

“北선수 3종목 22명 참가, 아리랑·한반도기도 합의”

IOC,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발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담판에서 모두 확정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단의 규모를 46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측 기자단도 21명이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으로 구성된다.

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나라의 엔트리는 23명이다.

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는 5개 종목에 나눠 걸쳐 있다.

먼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북한 선수 12명이 포함돼 우리 선수 23명을 합쳐 남북 단일팀 엔트리는 35명으로 결정됐다.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은 남북단일팀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단일팀에 국한해 엔트리를 35명으로 증원했다. 평

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다른 나라의 엔트리는 23명이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자력으로 올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남북단일팀도 22명으로 제한했다.

마리 감독이 2~3명 정도는 팀 워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기에 뛸 선수는 3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자력으로 올림

피 출전권을 확보하고도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을 일본에 넘긴 렘데ux-김

경기도 구제됐다.

쇼트트랙에선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아 평창에 온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선 한준경, 박일철 두 남자 선수와 리영금 등 세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얻었고, 알파인 스키에서도 최명광, 강성일, 김련향 등 세 선수가 출전한다.

남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서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한다. 기수는 남북에서 각각 1명씩,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구성된다.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 기가 그려진 특별 단복을 입고 단기는 아리랑·단일팀의 영문 죽약어는 ‘COR’로 정해졌다.

IOC와 남북은 고려 시절 아래 한반도를 불렀던 불여 ‘COREE’에서 단일팀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단기는 아리랑 그리고 국기는 한반도기이다. 서울평양뉴스

“까칠남녀, 동성애·음란 미화…폐지·문책해야”

[샬롬나비 논평] 공영방송 사명은 청소년들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이 지 동성애 조장 아냐



샬롬나비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김영
한 박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육방송(EBS)이 최근 동성애와 음란 행위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방송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은 충격 그 자체였다. 스튜디오에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4명의 성인이 학생 교복을 입고 출연해서 “트랜스젠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앓는 장애는 배뇨 장애”이며, “성 중립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등 부적절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또한 양성애자를 대표해 나온 작가 은하선 씨는 “지금은 여자애인과 살고 있는데 다른 이성으로 갈아탄 적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웠다. 그것도 모자라 “하루 한 번 자위한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 오이, 참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음란한 말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과연 이것이 명색이 ‘교육방송’에서 방송할 내용인가? 샐롬나비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도 차별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과 가치의 문제이다.

EBS 제작진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바 ‘성소수자 특집 편’의 기획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과연 그런가?

대체 이들이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까칠남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동성애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도덕과 가치의 문제이다. 합당한 윤리적 기준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차별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다. ‘동성애’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동성애라는 용어는 안 되고,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된다는 빌상 자체가 범서 자기모습이 아닌 수 있다.

2. EBS의 동성애 방송은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영교육방송 EBS는 동성애의 폐해나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절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인권’을 운운하며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전격 출연시켜 특집방송을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BS의 방송 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가치관 (1)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개혁을 선도한다. 7. 풍속, 사회생활 (1)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가능한 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성 (1)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

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12. 논쟁, 재판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유 시간에서 고품질로 다룬다”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나눈다.” 강령과 규칙이 이러함에도 이번에 방영된 ‘성소수자 특집’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루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게다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동성애 이슈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편파적으로 다루었다. EBS 이사진은 스스로 방송 강령을 무시한 제작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공영방송의 중요한 사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이자 동성애 조장이 아닌 것이다.

장이 아니다.
교육방송은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

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 논쟁이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가? 아니면 동성애 논쟁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적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 빠져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00조 원의 출산장려금을 사용하면서도 출산률이 점차 감소하여 사회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출산률 감소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있지만 청

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의식의 확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2018년 1월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 가운데 60% 정도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결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라는 대답이 44.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37.3%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건전한 성 가치관, 가정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하는 관국에 동성애자들을 출연시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



하는 것이 웬 말인가? 따라서 교육방송은 공영방송의 사명을 각성하고, 저출산

치관, 가정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특집방송을 편성해야 한다. 그것만이 교육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4. 까칠남녀 프로그램은 여성편향적이고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도 이미 9월에 까칠남녀 프로그램이 여성편향적이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사회갈등을 더 조장한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의도에 맞게 시민윤리

의 진작(振作)을 위하여 방송 내용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5. 이 프로그램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까칠남녀는 어긋난 폐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시키고 있다. 폐지돼야 마땅하다. ? 까칠남녀는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응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어 제작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폐지돼야 마땅하다. ? 까칠남녀는 남혐(男嫌),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게시자가 지적하듯이 이 프로그램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세뇌시킬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기되어야 한다.

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6.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윤리 발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개어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불건전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활동에 대하여 항상 깨어 감시하면서 기도하면서 한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으면서 사회의 다양한 양심 세력들과 연대하여 한국사회를 건강하고 평등하며 함께 이율려져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겠다.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건강한 성윤리를 발전시켜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정의 소중함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월드비전

The image shows a side-by-side comparison of two digital platforms. On the left is a smartphone displaying the 'My KIDS' mobile application. The app's interface includes a large photo of a smiling child at the top, followed by sections for 'My KIDS' (with a search bar), '봉어빵 지수' (Bongabong Score), and '후원금 출판 판권' (Fundraising Book Rights). It also features social media links for Facebook and YouTube. On the right is the 'My KIDS' campaign website. The header features the 'My KIDS' logo with a stylized orange 'y'. Below the header is a large call-to-action text: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Find the child like me somewhere in the world) and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You can protect their dreams and hopes with your hands). The website provides instructions for finding a child: '① 월드비전 웹사이트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Search for 'World Vision My KIDS' on the World Vision website) and '② 모바일웹 mykids.wv.or.kr로 접속해주세요.' (Connect to mykids.wv.or.kr via mobile web). It also includes a '월드비전 마이키즈' search bar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is a box titled '후원 키즈 찾기' (Find a child to sponsor) containing three numbered steps: 1. Search for a child on the Family Cards page, 2. Find a child to sponsor through the adoption program, and 3. Click the '후원 키즈 찾기' button. At the bottom of the website is a footer with the URL 'mykids.wv.or.kr' and a small navigation menu.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신명기 1장 1-18절)



기하학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이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수학은 어려울 가장 단순한 사실들을 공리나 공준으로 정의해놓은 후에 그것 을 기초로 해서 더 복잡한 법칙들을 정립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하여튼 ‘두 점을 선으로 잇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선은 단 하나의 직선’뿐이며, 만약 곡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것은 ‘최단거리’가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에서만 아니라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주지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방랑생활을 끝낸 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모세의 눈에도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는 했지만 자신은 그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 ‘모세의 고별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 그런 특별명령을 선포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앞에 닥친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리한 후 계속 ‘신정국’으로 성장함으로써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야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선의 최단 경로를 통해서’ 받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밖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안으로 질서와 체계가 잡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경향교회 역시 그처럼 강하고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보고자 합니다.

1.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축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니 2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았으니 4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면서 40년 전과는 다른 방향 즉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막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행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리”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인정대명사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的 하나님 이셨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의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가감과 친근한 하나님으로서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특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자주 나타나는 명칭인데, 이것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의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계병’을 받은 후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전군이 시작된 출발점이었으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단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의 거리는 264킬로미터로서 하루에 24킬로미터씩 걸어도 “열 하룻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는 겨우 ‘나흘’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 기록된 대로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와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아모리 왕 시흔”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면서 40년 전과는 다른 방향 즉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했습니다.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막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행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리”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인정대명사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的 하나님 이셨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의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가감과 친근한 하나님으로서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특히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자주 나타나는 명칭인데, 이것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 방향은 ‘남동쪽’이었지만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방향은 ‘북서쪽’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진하면 제일 처음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 곧 ‘아모리 족속의 산지’였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지만 그 대신 그들만 이기고 나면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그야말로 과제지세이며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지”라고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왕과 솔로몬왕의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차지하게 될 최대 판도의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싸움, 즉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요 전부나 다름없는, 그리면서도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8절에 바로 그 요령을 일러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사실 만 철석같이 믿으면,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땅을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제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 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오히려 간답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라는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에서 유리하는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출애굽 제1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새겨 주면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요령은 전(前)과 동(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은 이전과 다르게 되었어도 그 일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축복의 목표를 행취할 수 있는 방법도 그야말로 ‘요령은 전과 동일’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복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굳게 믿고 따르는 이것만이 기본 중의 기본 요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로에 자주 서게 됩니다.

비록 불가능한 난관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똑바로 전진해 나가느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미리 포기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만약 매사에 안전제일주의에 빠져서 후자를 택한다면 그런 교인이나 교회는 겨우 ‘나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끝내 정복하지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려 ‘40년’이나 우회하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 돌입한 병사의 진격 방향은 오직 ‘돌격 앞으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총탄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사방에서 포탄이 작렬해도 그처럼 모든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전진하는 것만이 적군을 무찌르고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인 것입니다.

반면에 각개병사의 진격 방향이 제각각 좌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리는 고사하고 모두 다 전사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축복의 미래를 향해 똑바로 행진하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수 마귀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온 교인들이 모두 다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총력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그 대신 온갖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야말로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경향의 모든 성도들은 ‘희년맞이 5대 목표’를 향해 똑바로 행진해야 할 뿐입니다.

특히 ‘보리떡 현금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곁눈질’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최단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며, 반면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만큼 더 늦어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만을 믿고 일사불란하게 똑바로 전진함으로써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간단히 정복해 내면서 그 뒤에 더 넓게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근방 곳곳’과 ‘산자’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에까지 이르는 창대한 복을 반드시 행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는 오직 ‘성경중심의 관찰과 치리’로 운영되어야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9월 이하 18절에 “9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흘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변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을 나누어서 지고 그 백성들 사이의 “다투는 일” 즉 송사를 재판해 줄 “수령”들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뽑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직 체계와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로 차이면 곧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급의 지휘관에 해당됩니다.

“조장”이란 일종의 행정관리였는데, 앞에 나온 각급 지휘관들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2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바로 이러한 지휘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와 같이 재조직함으로써 “현재보다 천 배가 더 많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16월 이하에 나오는 “재판장들”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을 참조해 보면 바로 앞에 나왔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과 동시에 사법적 판결의 업무도 같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소한 일들은 ‘십부장’ 선에서 처리했을 것이며 송사의 비중이 크면 이를 수록 상급 재판장들에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월 하반절에서 모세가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리”고 한 것처럼, 상급 재판장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나 원고 혹은 피고 중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끝까지 상소하는 경우에는 모세가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흘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무려 2백만 명이나 되도록 “변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물론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을 나누어서 지고 그 백성들 사이의 “다투는 일” 즉 송사를 재판해 줄 “수령”들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을 나누어서 지고 그 백성들 사이의 “다투는 일” 즉 송사를 재판해 줄 “수령”들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식의 사법체계였던 것입니다.

그 재판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곧 17절에 있는 대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할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할 때에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적인 교회”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절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사람의 ‘종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얻어져 있는 데 ‘그것을 불복종하는 의견’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뜻’이라고 해도 어떻게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법보다 더 올바르고 공정한 ‘개정법’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주적’ 교회 운영이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실패를 재연할 뿐입니다.

그 결과 2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높이는 중구난방의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질서와 화평’이 유지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직 ‘성경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중우 정치’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선 각 교인들의 ‘개인 신앙 양심’을 극히 존중해 주는 곳이며 또한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낚죽면서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기본적인 미덕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제 세상

을 만난 듯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별 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간에 열을 올리거나, 세상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온갖 불만 불평으로 터뜨리는 어처구니없는 교인들이 지상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교인일수록 마치 입에 붙은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소위 ‘민주적인 교회’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절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사람의 ‘종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얻어져 있는 데 ‘그것을 불복종하는 의견’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뜻’이라고 해도 어떻게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데 그 법보다 더 올바르고 공정한 ‘개정법’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주적’ 교회 운영이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실패를 재연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재보다”도 오히려 “천 배나 많게” 하시기를 기원했으며